

01 교회소식

아버지, 주님, 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담긴 목자의 고백.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심은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죄를 대속하고 장차 천국에서 좋은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이다.

03 기획특집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부모님과 자신이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치료받아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온 호주 신디아 맥밀란 집사.

04 간증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했더니...

굽히지 못하던 허리가 굽혀지고 12년 동안 팔리지 않던 집이 순간에 매매되는 등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45호 2021년 6월 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그 열매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신 대로
내게 속한 모든 이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매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내게 주신 은혜의 세월을 잊지 않았기에
오늘날 난 이 많은 이들의 목자가 될 수 있었듯
사랑하는 이들이 누리는 이 은혜가
아버지의 눈물임을 잊지 않기를...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곳으로
하나라도 더 이끌기 위한 내 눈물을 이들이 잊지 않기를...

난 나 혼자라 생각해 본 일이 없네.
내가 목자가 된 그 순간부터
내가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숨 쉴 때도
내 눈엔 내 영혼들로 가득하네.
잊어본 적이 없네, 이들의 기도 제목을...
이들에게 주어야 할 은혜를...
내가 짊어져야 할 일들을...

그래도 내겐 항상 감사가 있었던 것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

하루하루 보내는 이 세월 속에 묻어 있는 나의 사랑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달되어
그 열매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난 끝없이 전진하네.

내 사랑은 한이 없으니...
아버지의 사랑도 한이 없으니...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고백」 중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

가시면류관을 쓰신 십리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막 15:16~17)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지요. 로마 병사들이 역센 가시 줄기를 열기설기 엮어 머리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서 눌러 씌우니 가시가 사정없이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 파고들어 살이 찢기는 고통과 함께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도록 허락하셨을까요?

1.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음성을 들어나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순종해 죄를 짓지 않았습니디.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자 곧 죄를 낳게 되었지요.

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선악과가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므로 결국은 먹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도록 한 사단은 지금도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죄를 짓도록 역사합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기억 장치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는데 이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혼의 작용을 통해 되살려내는 것이 바로 '생각'이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장한 환경이 다르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입력된 내용도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혹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다 해도 저마다 어떤 느낌과 함께 받아들인냐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지요.

이러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을 누르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 준다고 하십니다(마 23:12). 또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1~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삼 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려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간청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동원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한 말이 스승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적으로는 지혜롭고 선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순종치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고후 10:5). 그래야만 진리를 좇아갈 수 있고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후 생각으로 짓는 죄를 근본적으로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악이 있고 세상을 좇는 속성들이 가득하면 육신의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사람이 육신 곧 미음, 시기, 교만, 혈기, 게으름, 간음, 방탕, 탐심 등 죄의 속성을 좇아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좇아 취하고 육신의 정욕이 더 깊어지면 육체의 일(갈 5:19~21)을 행하고 싶어집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이지요. 이러한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사람들은 더 세상적이고 정육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이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좇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이로 인해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며 명예와 권세 등을 취하려고 하지요.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근본적으로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빛어지는 모든 불의와 불법,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므로써 우리가 생각을 통해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2. 우리에게 좋은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주셨기에 누구든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함 받고 장차 천국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친히 가난한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고 부요함을 주신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요. 이 땅에서도 어떤 경기에 출전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면 참가자 전원에게 주는 참가상이 있는가 하면 금, 은, 동메달 등 순위에 따라 주는 다양한 상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면류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한 대로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참가상을 주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싸워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 상이지요.

또한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며(벧전 5:4),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모든 죄와 악을 버린 성결한 사람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약 1:12 ; 계 2:10).

사도 바울처럼 모든 죄악을 버려 성결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딤후 4:8).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한 것처럼 금 면류관도 있음을 알 수 있지요(계 4:4). 여기서 ‘장로’란, 이 땅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로, 즉 온전히 성결하고 온 집에 충성하는 믿음, 영원히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큼 죄와 싸워 그것을 버리며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따

라 단정히 행하고(롬 13:13~14),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함으로 영혼이 잘되어 가는 만큼(갈 5:16), 또한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만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어 좋은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심으로 사람이 생각으로 짓는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자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아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고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에서 온 편지

“부모님과 제가 코로나19를 신속히 치료받았습니다”



1월 중순, 저는 호주에서 미국으로 가기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부모님을 위

고 당회장님께서서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마치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지요.



해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기도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95세의 고령이신 데다가 아버지는 신부전증까지 앓고 계셔서 두 분 모두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기도하며 그것을 품에 안고 잤지요. 저의 코로나 증상은 심하지 않았고, 결국 신속히 치료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기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지만 아버지는 아직 호흡곤란 등 심각한 코로나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전화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입원하신 지 5일 만에 건강을 회복하셨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부모님과 저는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텍사스에 머물던 마지막 2주 동안은 부모님을 매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미국 텍사스에 머문 지 17일 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검사받기 이틀 전, 저는 꿈에서 당회장님을 보였

3월 5일, 저는 호주 시드니에 도착했고 자가 격리 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기도해 주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 4. 14. 호주 시드니에서 신디아 맥밀란 집사 올림.



“기도를 받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니 14년 된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가 굽혀졌습니다”

윤 성도 (65세,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만민교회)



저는 친구를 통해 성결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의 전도로 만민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한 말씀이었고, 어떻게 죄를 싸워 버려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지요.

◆
제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허리 통증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웠지요. 허리를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어려웠고, 의자에 앉아서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제게는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

지요. 병원 검사 결과, 척추에 공간이 생겼다 하여 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킌사사만민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아 랜선으로 강사 이미경 목사님을 모시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집회가 열린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회 날, 강사님께서서는 전체 환자 기도에 앞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치료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회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치료에

대한 감사헌금을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
그러자 발부터 허리까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땀이 많이 흘렸습니다.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지요. 그 뒤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여 보고 허리를 숙여 보니 놀랍게도 통증이 전혀 없었고 허리가 굽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자이시며, 해결법을 알려 주십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결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년 동안 안 되던 집 매매가 형통하게 이뤄졌어요”



최순덕 집사 (63세, 3대대 21교구)

집을 건축하며 받은 대출과 가족 병원비로 인해 늘어난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경매로 집이 넘어갈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집을 내놓았지만 12년이 지나도록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
지난 1월, '전 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처음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고 눈물도 나서 책을 오래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서 읽기'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꿈속에서 “게으르다, 게으러. 게으르다” 하는 남자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놀라 잠에서 깰지요. 그다음 날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번 해 보자'라는 각오로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구원과 천국, 지옥 등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이 귀한 책들을 그동안 가까이하지 못한 게으름과 처음부터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6시간씩 책을 읽었지요.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
책을 읽기 시작한 지 12일째 되던 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는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저는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30분 정도 기도하였지요. 그런데 집을 보러 오신 분이 너무 마음에 드니 바로 계약을 하자며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매매되지 않던 집을 2월 2일에 계약하고, 26일에 잔금까지 치러 은행 및 고금리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었지요.

◆
이자를 내야 한다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니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명의 이전도 되고 잔금도 다 받았으니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데, 집을 사신 분이 제가 집을 구할 때까지 월 50만 원씩 내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6월 1일에 이사하게 되었는데, 3개월 치의 월세를 이사하는 데 사용하라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
이처럼 살뜰하게 챙겨 주시는 자상하고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당회장님 저서 읽기'를 통해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서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릉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